

강진군, 수자원 확보·홍수 대응 위한 ‘병영천댐’ 건설 추진

기존 흙골저수지 제방 아래 건설
저수용량 102만t, 총사업비 965억
관계기관 협력 등에 행정력 집중

전남 강진 수자원의 새 전환점을 마련할 획기적인 신규댐 ‘병영천댐’이 건설된다.

강진군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병영천댐 건설사업이 신규댐 건설계획에 최종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홍수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군은 지난 2023년부터 병영천댐 건설의 필요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기후변화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물 관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병영천댐은 기존 흙골저수지 제방 아래에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저수용량 120만 톤, 홍수조절용량 57만 톤 규



지난해 8월 29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모습. /강진군

모다. 총사업비는 965억원이다.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90%와 지방비 10%이다.

댐이 건설되면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홍수조절을 통해 하천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인구 변화와 지역개발에

다른 물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물 부족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강진군은 사업 선정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댐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 효과가 강진군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발전 방안과 주민 지원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병영천댐 건설사업의 최종 선정은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물은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병영천댐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고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국가대표 도시매력도 대상

경주시는 ‘2026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에서 국가대표 도시매력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역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황리단길 등 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해 도시 매력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행사 운영 역량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입증한 점도 호평받았다.

시는 문화유산 보존·활용과 사계절 축제,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 관광·교통·숙박 기반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경북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경북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 등 인천광역시 일원 6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6 인천광역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북 선수단이 7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교육청 소속 학생선수단은 9년 연속 학생부 우승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북 선수단은 46개 직종에 130명이 출전해 금메달 13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 13개, 장려 31개 등 40개 직종에서 총 79개 입상 성과를 거뒀다. 합산 점수는 1,991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정상에 올랐다.

/경북=김진환 기자

경남도, 추석 앞두고 도로정비 실시

457개 노선, 6689km 대상
집중호우 피해구간 등 정비

경남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름철 집중 호우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떨어진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추계 도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지방도·위임국도·시도·군도 등 457개 노선 6689km로,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18개 시군이 함께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8월 집중 호우에 따른 도로 파손 부위와 배수로 정비 ▲교량·터널 기능 확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비탈면 정비 ▲도로표지 정비 ▲불법 점용 시설물 정리와 풀베기 등이다.

특히 지난 15~18일 집중 호우로 거제·통영 등에서 발생한 피해 구간은 응급 복구에 그치지 않고 추가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며 태풍에 대비해 배수시설과 비탈면, 낙석·산사태 취약구간도 함께 살핀다. 귀성객이 느는 명절 특성을 감안해 간선도로와 마을 진입로 주변 제초·청소, 불법 적치물 정리도 병행한다.



국지도60호선 생림-상동 간 포장도 정비 현장. /경남도

경남도는 정비가 끝나는 10월 14~20일 자체 점검·평가로 시군별 실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연내 보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2025년 도로정비 평가에서 현장·행정 12개 항목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지방도 최우수, 위임국도 우수 기관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산청 제철전지기도 산청·함양·거창 지역 출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도비 10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제안

경북도-영천시, 말산업 육성 논의

경북도와 영천시가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을 공식 제안했다. 양급회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병삼 영천시장 은 지난 28일 우회중 한국마사회 회장을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제안서’를 전달하고 랫츠런파크 영천과 연계한 말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이 랫츠런파크를 보유한 한국마사회의 핵심 사업 현장이자 대구·경북권 교통망과 산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본사 이전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본사와 랫츠런파크 영천을 연계

해 사업 현장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다. 본사 이전을 계기로 말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교육기관, 전문인력양성시설, 관광·레저 콘텐츠를 집적해 영천을 말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본사 이전 시에는 이전 부지와 행정절차를 비롯해 임직원의 주거·교육·교통·의료·문화생활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랫츠런파크 영천을 말산업과 관광·문화·레저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와의 협력사업도 지속 발굴한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kih9@



포항시는 28일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2026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10곳 선정

신규 10곳, 재지정 4곳 지정서 수여

포항시는 지난 28일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2026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신규 10개 기업과 재지정 4개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행사에는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의장, 송경창 포항테크노파크원장, 박제서 포항유망강소기업협의회장과 기업 대표·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우수유망강소기업에는 ㈜스트라드비전과 ㈜디에스텍 2개 사, 유망강소기업에는 힐팩(주), ㈜이프, ㈜캐러밴트, ㈜국민기계, ㈜시민제과, ㈜다원화학 등 6개사가 선정됐다. 예비유망강소기업에는 ㈜이뮤노바이옴과 ㈜포스코어 등 2개

사가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경도공업, ㈜드림텍, ㈜성화이앤씨, ㈜휴먼텍 등 4개사도 재지정됐다. 재지정 기업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등 기업 지원 시책의 수혜자격을 유지한다.

시는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과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지정 기업에 기술개발, 사업화, 공정·경영혁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3년간 사업화 자금은 예비유망강소기업 1000만원~최대 2000만원, 유망강소기업 1000만원~최대 3000만원, 우수유망강소기업 1000만원~최대 5000만원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대-메가존, 지역 AX 전환 이끈다

‘경남피지컬AX연구협력센터’ 개소

경남대학교가 지난 28일 한미미래관 4층 심연홀에서 메가존과 ‘경남피지컬AX연구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는 제조 현장의 설비와 공정, 데이터 등을 인공지능과 연결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X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공간이다. 경남대는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끄는 대학으로서 제조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과 재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형 AI 교육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센터는 한미관 2층 273㎡ 규모로 조성

됐으며 메가존클라우드와 알싸케이, 아이미크 등 3개 기업의 전문 인력 20여 명이 상주해 경남대 교수진, 학생들과 함께 제조 AI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센터는 앞서 경남대와 메가존이 함께 운영해 온 초거대제조AI글로벌공동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개소식은 경남도의 글로벌 피지컬 AX 중심지 전략과 창원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경남대가 보유한 제조 AX 교육·연구 기반에 메가존의 AI·클라우드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제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인재 양성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광주시

섬 여행하면 50% 환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 섬 방문의 해’를 맞아 반값여행 관광 상품을 출시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8개 시군 16개 섬을 여행하면 관광경비의 50%를 돌려주는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 상품’을 오는 11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반값여행을 할 수 있는 섬은 목포 달리도·외달도, 여수 하화도·사도·거문도·개도·금오도, 고흥 죽섬·연호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영광 송이도, 진도 관매도, 신안 흑산도·반월바지도·증도 등이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